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과 실행과 건축

(목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3)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함

성경: 엡 1:10, 4:15-16, 골 2:19

- I.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엡 1:10.
- A. 하나님께서 그분의 갈망을 따라 그분 자신 안에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경륜(혹은 시대적인 안배)은 때가 찰 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 B. 이것은 생명 요인이신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공급을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분배하여, 그들을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몸에 견고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성취된다.
- C. ‘때’는 시대들을 가리킨다. 때가 차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안배가 완성된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는 때일 것이다. (‘시대적인 안배 (또는 분배: dispensation)’는 분배하는 행동이나 경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요소와 함께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존재 안에 일해 넣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시대적인 안배 또는 분배의 의미이다.)
1. 모두 네 시대가 있는데, 바로 죄의 시대(아담), 율법 시대(모세), 은혜 시대(그리스도), 그리고 왕국 시대(천년왕국)이다.
 2.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에게, 그리고 물론 주 예수님께도 분배하셨다.
 3. 이러한 분배는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계속된다. 현재 하나님의 분배는 사도 바울의 때에 있었던 분배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게 분배되고 있다 — 비교 엡 3:2, 뱀전 4:10.
 4. 이 분배는 천년왕국을 거쳐 때가 찰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궁극적이고 완결된 분배는 삼일 하나님을 새 예루살렘 성 전체에 분배하는 것일 것이다 — 계 22:1-2.
 5. 우리는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이 완결된 분배의 축소판을 누린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생수이신 그 영을 누리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완결된 분배를 기다리고 있다. 완결된 분배 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질 것이다.
 6.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도 있다(요 1:4, 8:12). 새 예루살렘은 빛으로 적셔져 있기 때문에 태양 빛이 필요하지 않다. 삼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통제하는 빛일 것이다 (계 21:23).

7.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나 죽음이나 어둠이 없을 것이다. 대신에 생명과 빛이 있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고 좋은 질서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8.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안에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계 21:24). 이것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다고 말하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성취일 것이다.
- D.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엡 1:22).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안배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과 경륜이다.
- E. 이와 같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1장 3절부터 9절까지 다루어진 모든 항목 —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 우리를 구속하신 것, 우리를 용서하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 의 결과이다.
- F. 더 나아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교회에 관련된 것임을 더 계시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천사들과 사람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생긴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주적인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붕괴로부터 구출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다.
- G. 믿는 이들은 교회생활 안에서 기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생명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빛 아래 생활함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에 참여한다 — 요 1:4, 8:12, 엡 5:8-9, 계 21:23-25.
- H.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죽고 메말라 흠어진 뼈들의 그림은, 진정한 하나 안에서 몸과 교회와 하나님의 집을 얻는 유일한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1. 죽은 사람들 안으로 숨이 들어갔을 때, 그 숨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들은 살아나 하나로 일어서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2. 죽은 뼈들은 생명의 분배와 생명의 성장의 결과로 살아나고 하나가 되었다 — 겔 37:1-14.
- I.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하는 일은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공급을 우리 안에 분배함으로 일어난다. 더 많은 생명 요인이 우리 안에 공급될 때, 우리는 더욱더 일어서고 견고히 연결된다. 우리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생명 요인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어, 우리를 일으키고 서로 견고히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
- J. 모든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절대적인 평안과 조화가 있을 것이고(사 2:4, 11:6, 55:12, 시 96:12-13), 그 붕괴에서 완전히 구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만물이 복원될 때부터 시작될 것이다(행 3:21).

II.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한다 — 엡 4:15.

- A. 몸의 유기적인 건축은 몸의 성장이며, 몸의 성장은 모든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시는 것, 곧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증가하시는 것이다 — 엡 2:21-22, 4:16, 골 2:19, 비교 요 3:30.
- B. 생명이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다 — 비교 욥 1:1-5, 42:1-6.

- C. 자라는 지체가 건축하는 지체이다 — 엡 4:16.
- D.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 엡 4:15.
1. 여기서 진리는 참된 것들을 의미한다 — 롬 3:4.
 - a.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붙잡아야 한다 — 딤후 1:3-4.
 - (1)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다 — 엡 3:9.
 - (2) 이 경륜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 엡 3:10-11, 1:22-23, 고전 1:30.
 - b.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 요 14:6, 엡 1:23.
 - (1) 그분의 분량은 측정할 수 없다 — 엡 3:18.
 - (2) 그분의 풍성은 측량할 수 없다 — 엡 3:8.
 - (3) 그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다 — 엡 3:19.
 - c.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붙잡아야 한다 — 딤후 3:15.
 - (1) 그리스도의 몸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 행 9:4, 고전 12:12.
 - (2)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충만, 곧 표현이다 — 엡 1:23, 3:19.
 2. 우리는 신성한 사랑이라는 요소와 영역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 엡 4:15.
 3. 우리는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란다. ‘모든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 비교 속 4:6, 10.
 4.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란다 — 비교 수 9:14.
 - a.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머리이심 — 고전 11:3.
 - b.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 — 엡 5:23.
 - c.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심 — 엡 1:22, 10.
 5.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의 모든 내적 부분들 안에서 증가하시고 자라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란다.
 - a.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연합된 영을 알고 사용하며 훈련해야 한다.
 - (1) 에베소서 1장 1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도록 기도해야 함을 보여 준다.
 - (2) 에베소서 2장 22절은 모든 믿는 이들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 (3) 에베소서 3장 5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영 안에 계시되었다고 말한다.
 - (4) 에베소서 3장 16절은 우리가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기를 기도해야 함을 보여 주는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으로 가진,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 (5) 에베소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한다.
 - (6)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영 안에서 충만해지라고 말한다.
 - (7)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한다.
 - b.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체현인 거룩한 말씀의 젖과 음식을 먹어야 한다 — 벧전 2:2, 히 5:13-14.

III. 우리가 생명 안에서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랄 때,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의 기능이 머리이신 분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 엡 4:16.

- A. 우리가 각각의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풍성을 공급받을 것이고,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받아 몸의 다른 지체들 안으로 옮겨 부어 줄 것이다 — 고전 14:4하, 요 7:37-39.
1.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으로 공급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 고후 3:6, 8.
 2. 우리는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양육을 받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 — 빌 1:25, 고후 1:24.
- B. 온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 — 엡 4:16.
1. 이 성장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 —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특별한 은사들 — 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엡 4:11-12.
 2. 이 성장은 각 지체 —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 — 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엡 4:7-8.
- C.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다 — 고전 8:1하.
1.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무언가가 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한 가장 뛰어난 길이다 — 고전 12:31하-13:13.
 2. 에베소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인 사랑(요일 4:8, 16) 안으로 이끌려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또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 엡 5:25, 6:24, 1:4, 3:17, 4:2, 15-16, 5:2.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경륜의 의미

이제 우리는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어떤 가르침은 경륜이 한 시대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경륜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간 동안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무죄 시대의 경륜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한 방식으로 다루시고, 양심 시대의 경륜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신다는 것이다. 경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다. 경륜은 곧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선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경륜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또 여러 도표를 연구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백성에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이 모든 도표를 떨쳐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신다는 것만을 기억해야 한다.

생명의 분배

우리가 지적인 바와 같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자신을 사람 속에 주입했을 때 사탄은 사람

에게 죽음과 어둠을 가져왔다. 죽음은 파멸을 초래했고, 어둠은 혼돈을 가져왔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파괴하고 혼돈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죽음이 더한 곳에 생명은 더욱 더 넘쳤다! 사탄이 들어와 죽음을 가져온 후, 하나님께서 오셔서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다. 생명이 있는 곳에 또한 빛이 있다. 죽음은 파괴하지만 생명은 치료하며, 어둠은 혼돈을 가져오지만 빛은 견고한 질서를 가져온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죽음은 파멸을 가져왔으며, 어둠은 혼돈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셔서 죽은 피조물을 살리셨고 질서를 가져오셨다. 이 질서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다. 아담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그분 자신에 속한 무언가를 아벨에게 분배하셨다. 하나님은 에노스와 에녹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다. 자신 안에서는 죽어 있는 사람인 에녹이 스스로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창 5:22).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에녹에게 분배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노아에게 분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신 것은 아벨로 시작하여 세대를 거쳐 증가되었다. 따라서 에노스보다 에녹에게 더 많이 분배되었고, 에녹보다 노아에게 더 많이 분배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더욱더 많이 분배되었다. 사도행전 7장 2절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한다. 그 나타나심은 틀림없이 분배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분배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했을 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을 때, 우리는 그때에는 깨닫지 못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셨다. 우리의 체험을 되새겨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던 날, 무엇인가가 내 안에 분배되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고, 내 속에서는 불이 타올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깨우심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분배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실 때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신다. 하나님의 분배하심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분배될 때, 강도가 성도로 변화된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 가서 삼십 분 동안 그분의 분배를 받기를 권한다. 그동안 여러분의 문제나 환경은 잊어버리라. 다만 주님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부족함과 그릇됨을 자백하라. 주님께 자백하면 할수록, 주님은 그분 자신을 여러분 속에 더욱더 분배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낱말을 쓰든지, 즉 분배하심이라고 하든지, 일깨우심이라 하든지, 옮겨 부으심이라고 하든지, 주입하심이라고 하든지 간에 체험은 똑같은 것이다. 나는 용어(用語)를 주의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신성한 요소가 여러분 속에 분배되는 것을 주의할 뿐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속에 일해 놓여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경륜의 뜻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분배가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곱 경륜에 대해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분배하시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부담은 교리(敎理)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그분의 백성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 사역에 당신의 의견이나 관념을 가져오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은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리나 관념에 대해 따지

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의 부담은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옮겨 붓는 것이다. 여러분은 교리는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신성한 요소는 매우 부족하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요소를 여러분 속에 분배받는 것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형제회(Brethren)에 있었지만, 교리에 대한 그들의 논쟁에 염증이 났다. 우리에게 교리는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성한 요소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요소를 우리 속에 넣어 주는 것이다.

궁극적인 경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아벨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분배하셨다는 것을 보았다. 모세에게는 더 많이 분배하셨고, 물론 주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많이 분배하셨다. 이러한 분배는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계속된다. 현재의 하나님의 분배가 사도 바울 시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놀랄 것이다. 바울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오늘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무리가 과연 있었겠는가? 오늘날에는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가 있다. 이 분배는 천년왕국을 거쳐 때가 찰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때가 찰 때의 경륜은 가장 높고 가장 넓은 분배일 것이다. 이 분배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계시된 바와 같이 영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에서는 새로운 환경, 곧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뜻한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것은 죽음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때에는 죽음이 삼켜질 것이다. 천년왕국의 끝에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불 못에 던져져 없어질 것이다. 죽음의 자리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역, 새로운 환경이 있을 것이고, 그 중앙에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주의하여 읽어 보면, 새 예루살렘은 사실상 높이가 일만 이천 스타디온, 곧 이천 킬로미터 이상의 거대한 산이다. 그 산꼭대기에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있다(계 22:1).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이 강은 산 밑으로 흘러내려 그 성의 열두 문에 이른다. 생명수는 마시기 위한 것이자 생명 공급을 위한 것이지, 목욕이나 침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란다(계 22:2). 이것은 여러분이 생명수를 마실 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명수를 마실 때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극적이고 완결된 분배를 본다. 즉 삼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전체에 분배되시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그 성은 생명수로 충만하고 적셔지고 침투되고 잠기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를 위해 계획하신 최고의 분배이다.

교회생활에서 누리는 축소판

우리는 오늘날 교회생활에서 이러한 완결된 분배의 축소판을 누린다. 교회 안에는 생명의 흐름이 있다.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것은 교회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분배이다. 그러나 이것은 최고의 분배, 곧 때가 찰 때의 분배는 아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수를 누리며 궁극적인 분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완결된 분배 안에 있을 것이며, 삼일 하나님

으로 완전히 적셔질 것이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어린양은 아들을, 생명수의 강은 그 영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7장은 생명의 강이 그 영을 가리킴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시는 생명나무이신 아들 하나님과 함께 흐르시는 영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의 분배, 최고의 분배, 때가 찰 때의 분배이다.

이 분배는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시대가 갈수록 증가되어 마침내 때가 찰 때의 분배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때가 찰 때의 분배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쁨으로 춤을 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우리만큼 궁극적인 분배에 가깝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궁극적인 분배에 동참할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생활 가운데에서 장차 올 분배의 축소판을 갖는다.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르며 누리는 것이다.

생명 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곧 빛 되시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오,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다니!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배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적셔진다. 우리 안으로 생명이 더 많이 분배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높이 오른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다.

생명의 빛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함

생명이 있는 곳에 또한 빛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한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요 8:12).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생명과 빛을 모두 본다. 새 예루살렘은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취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우리를 비추는 빛인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과 죽음과 어둠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생명과 빛이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일어서고 질서 있게 될 것이다.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에 질서가 있다. 만약 로스앤젤레스 시에 빛이 없다면, 그 어둠과 혼돈이 어떠하겠는가! 생명은 조절하고, 빛은 통제한다. 교회생활에 규례는 없지만, 조절하는 생명과 다스리는 빛이 있다.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할 때 또한 빛으로도 충만하다. 이럴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밖의 규율이 아닌 속의 생명으로 조절되고, 생명의 빛으로 통제되어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바

로 생명과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머리, 머리를 둘러싼 몸, 성(城)의 빛 가운데 행하는 모든 민족들을 본다(24절).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빛나는 영역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이 중심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다고 말하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성취일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생명의 분배가 필요하다. 우리 속에 분배된 그 생명이 마침내는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이다. 때가 찰 때의 분배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 성의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다. 이것은 죽음이나 어둠이나 파멸이나 혼돈이 없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 대신 만물이 견고한 질서 가운데서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어,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다. 만물이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 것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생활은 이것을 먼저 맛보는 생활이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다. 이 축소판 안에 있는 우리들은 빛을 가져오는 생명의 분배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10장, 105-112쪽)